

이스트브릭스워 구역과 함께하는 가톨릭 퀴즈

1번부터 7번까지 각각의 문제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를 더하세요.

1. 우리성당의 주임신부님 성함은 무엇일까요?

☞남웅 스테파노 신부님

2. 본당부제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윤석로 이나시☞

3. 에디슨한인천주교회의 창립은 몇년도일까요?

199☞년

4. 성당의 주소는 무엇일까요?

1☞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5.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 1장을 구매시, 얼마를 지불해야할까요?

\$☞

6. 지난 주 제2독서 중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는 ☞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의 말씀이었습니다.

7. 지난 주 루카복음의 17장 말씀 중 “일어나거라, 네 믿음이 너를 ☞원하였다.”

1번부터 7번까지 나온 숫자를 모두 더하면?

정답: _____

이스트브런즈워 구역장 732-353-8245로 정답과 성함을 함께 sms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답을 맞으신 분께는 다음주일에 한국에서 공수해 온 작은 성모상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가로세로 낱말퍼즐

세로

1.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뒤에 영혼과 육신이 모두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는 신앙 교의를 경축하는 의무 축일.
2. ☞☞☞의 성모는 포르투갈의 산타렐 현 빌라노바데오렐에 있는 마을 ☞☞☞에서 세 명의 어린 목동에게 나타났다는 성모마리아를 부르는 칭호이다.
3.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4. 한국 교회에서는 매년 부활과 성탄 때에 받는 고해 성사를 이렇게 부른다.
5. 구세주 탄생을 기리고, 세말의 심판을 위한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로 성탄 전 4주간을 말한다.

가로

6.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대축일
7.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를 맞아들이게 해주신 어머니께 드리는 특별한 존엄성을 찬미하는 날.
8. ‘글로리아’로 불리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부른 찬미가에서 유래한다.

							4					
					3/6				5			
		2										
1/7												
8												

연중
제 29주일

2022년
10월 16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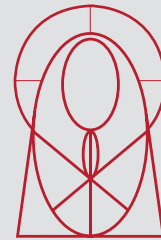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부르짖을 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신다.〉
루카 18,1-8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탈출기 17,8-13
화답송 시편 121(120),1-2.3-4.5-6.7-8(◎ 2 참조)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3,14—4,2
복음 환호송 히브 4,12 참조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 복음 루카 18,1-8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부르짖을 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신다.〉

🌸 미사지향 (연미사)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이택면(예로니모) 신부님 - 안을봉(요셉) 가족, 변태용(요셉)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박옥엽(마리아) - 황분숙(비비안나)
- 이예두(요셉), 장치숙(아가다) - 이 이레네
- 최완준의 부모님 - 가족
- 김명규 - 안현정(소화테레사)
- 양순조, 조고만 - 양영길(그레고리오)
- 황규순(말가랏다) - 박정훈(베드로)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하준석(마태오) - 박원종(본시아노), 추승호(비오)
- 우영인(가브리엘) - 박정훈(베드로), 서정근(안셀모) 가족

- 이은숙(가브리엘라) - 가족
- 정길예(프란체스카) - 채미영(테레사)
- 김자경(크리스티나) - 최정원(레지나)
- 박미경(스텔라) - 가족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37명).....\$1,370
- 교무금.....\$1,790
 - 조인(6-12) 우영인(9-10) 장수지(11-12)
 - 서정근(9-10) 백원선(7-9) 이대우(9-10)
 - 염기선(9) 김영숙(9-10)
- 성모 동산 조성 기금
 - 오경선(\$1,000)

🌸 로사리오 성월에 체스토호바 성모님(Black Madonna)을 찾아보았습니다. 참석인원은 총 44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신부님과 두 분 부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후원금으로 성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최승웅 미카엘 부제님\$150 외 11명 \$450

• 총 합계\$600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 |
|------------|-----------|
| 정영철(프란치스코) | 하건철(안토니오) |
| 오용덕(헨리코) | 오경선(원선시오) |
| 염은미(클라라) | 하준석(마태오) |

한빛 문상



류상에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루수녀회 대구관구

🌸 2차 헌금

- 10월 23일: World Mission Sunday

🌸 10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10월 목주기도 성월을 맞아 10월 한 달간 매 주일 미사 전 11시에 목주기도를 다같이 바칩니다.

🌸 노스브런스윅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10월 1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피스브릿지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10월 1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통합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10월 26일(수요일) 오후 7시 경당

🌸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안내

- 일시 : 11월 1일 (화)
- 오전 9시 영어 미사 (경당)
- 저녁7시 한국어 영어 미사 (성당)

🌸 위령의 날 통합 미사 안내

- 일시 및 장소: 11월 2일(수) 저녁 7시 성당 (한/영)
-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봉투에 지향자 및 봉헌자 성함을 기입하셔서 사무장에게 주시면 됩니다.

🌸 유스그룹 커피 쿠폰 판매

-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친교실에서 운영 중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 커피 쿠폰 1장 구매시 \$2
- 커피 쿠폰 12장 구매시 \$20

🌸 Rosary Altar Society 주관

Gertrude Hawk 크리스마스 캔디 세일

- 성당 입구에 비치된 주문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장에게 전달바랍니다.
- 주문 마감 : 11월 6일(주일)까지
- 문의: 사무실 (732-356-1037)

🌸 Holy Name Society 가을 50/50 Raffle 행사

- 본당 발전 기금 마련을 위한 50/50 Raffle 행사 안내문과 티켓을 각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만약 메일로 티켓을 받지 못하였거나 추가로 티켓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추첨 일시: 11월 19일(토) 오후 5시 15분
- 추첨 장소: 친교실

🌸 교황님과 함께하는 2023 세계 청년 대회 [포르투갈 리스본]

- 날짜: 2023년 7월 23일(일) - 8월 7일(월)
- 지도 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이상빈 알렉산텔
- 장소: 포르투갈 리스본 (파티마 성모 발현지, 포르투 관광, 산티아고 순례길 포함)
- 대상: 12학년이상 현재 신앙 활동하고 있는 청년 [기혼자 참여가능]
- 인원: 선착순 20명
- 참가비: \$3,500 (불포함: 산티아고 순례 4박 숙박비)
- 신청 문의: wydkoreannewyorkers@gmail.com
- 관련 영상: <https://youtu.be/JUutJBk5saQ>
- 뉴욕 브루클린 한인공동체에서 주최하는 그룹으로 출발지는 뉴욕 JFK 공항입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제 1독서 탈출기17,8-13

그 무렵 아말렉족이 몰려와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 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3,14-4,2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루카 복음 18,1-8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졸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여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루카 18,5

🌸 기도는 요술봉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루카 복음 18,1-8 비유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두가지 결론을 내리십니다. 과부가 의롭지 못한 재판관을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설득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며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지 않으시고 즉시 실행해 주실 것입니다. (7-8 절 참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여겨질 때 피곤하고 지친 순간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소리를 빠르게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는 요술봉이 아닙니다! 요술봉이 아니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께 향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분께 의탁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요!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히브리 5.7)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처음 이 부분을 보았을 때 미덥지 못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하시어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걸어야 했던 길은 죽음을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들으신 청은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뜻합니다. 번뇌 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수난의 고통이라는 잔에서 해방시켜 주실라고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향한 무한한 신뢰의 기도로 그분 뜻에 따라 미련없이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마태 26.39) 기도의 목적은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입니다. 소망을 변화시켜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 입니다. 누구든 이를 행한다면 그 무엇보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느님과의 일치를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루카 18.8) 이 질문을 통해 모두에게 경고하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이 흔들리기에 기도가 믿음을 지켜줍니다! 비유말씀에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낸 과부의 믿음처럼 지치지 않고 인내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청합시다. 기도를 통해 자비로운 사랑으로 자녀들을 채워주는 아버지와 같으신 하느님의 자애로우심을 경험합시다.



2016년 5월 25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알현 가르침 중 발제